정보

György Ligeti, Melodien
작곡가: György Ligeti(1923–2006)
작품명: Melodien
작곡 시기: 1971년
초연: 1971년 12월 10일, Nürnberg, Philharmonisches Orchester Nürnberg, Hans Gierster
지휘
장르: 단악장 오케스트라 작품
위촉: Albrecht Dürer 탄생 500주년을 기념한 Nürnberg 시의 위촉
출판: Schott, ED 6334

개요
György Ligeti의 Melodien은 제목 그대로 복수의 “선율들 ”을 다루지만, 한 선율이 주제와 반주를 이끄는
전통적 관현악곡은 아니다. 1971년 Albrecht Dürer 탄생 500주년을 기념해 Nürnberg 시가 위촉했으며 , 12 월 10일 Philharmonisches Orchester Nürnberg와 Hans Gierster의 초연으로 공개되었다 . Ligeti는 Atmosphères와 Lontano에서 밀집한 음향을 만들던 방식을 더 투명하게 바꾸어, 각 성부가 서로 다른 속도 · 리듬 ·음정 간격을 가진 선율처럼 잠깐씩 들리게 했다. 작품은 단악장으로 이어지며, 선율 조각의 출현과 겹침, 중앙의 여러 옥타브 유니즌, 다시 벌어지는 음역과 흐려지는 종결이 하나의 연속 흐름을 이룬다.

출판 정보

Ligeti 공식 작품 데이터베이스는 Melodien을 1971년 단악장 작품, 약 13분으로 기록한다. BMC와
Music Austria는 Schott Music, Mainz의 연구용 악보 ED 6334와 작품번호 43 213을 제시한다.
공식 영문 페이지는 작품을 Orchestra 범주로, 독문 페이지는 Ensemble 또는 Kammerorchester
범주로 표시한다. 이는 소편성의 실제 악기 수와 독주 현악판 선택을 반영한 분류 차이이며, 서로
다른 작품을 뜻하지 않는다.
초연 지휘자 표기는 Hans Günter Mommer와 Hans Gierster로 나뉘지만, Ligeti 공식 페이지, BMC, Music Austria, IRCAM, Ensemble C Barré는 Hans Gierster로 일치한다. 여러 독립 자료가 같은 표기를 제시한다.
공식 영문 페이지의 기여자 수 38명과 독문 페이지의 16명은 같은 집계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현악 증원판과 독주 현악판, 사이트 입력 방식의 차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숫자를 편성의 합계로
사용하지 않는다.

소요 시간

공식 Ligeti 페이지, Budapest Music Center, Los Angeles Philharmonic은 약 13분으로 제시한다. Ensemble C Barré의 공연 안내는 12분으로 표시하며, 실제 연주 시간은 지휘자의 템포와 공연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3분은 반복해서 확인되는 원전 안내값이고 12분은 기관별 실연 표기다.

편성

플루트 1(피콜로 겸함), 오보에 1(오보에 다모레 겸함), 클라리넷 1, 바순 1, 호른 2, 트럼펫 1, 트롬본 1, 튜바, 타악기 1, 피아노와 첼레스타 겸임, 현악. 공식 자료는 현악을 제 1바이올린 8, 제 2바이올린 6, 비올라 6, 첼로 4, 더블베이스 3으로 제시하며, 다섯 파트를 독주 현악 1·1·1·1·1로 연주할 수 있는 선택도 함께 기록한다. 타악기에는 팀파니, 실로폰, 비브라폰, 글로켄슈필 , 크로탈이 포함된다.

피아노와 첼레스타, 글로켄슈필과 크로탈의 금속성 음색은 현악과 목관의 선율 조각 사이에 반짝이는 표면을 만든다. 각 악기군의 정확한 교대 순서와 주법은 공개된 편성표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으며, 공식 자료는 위에 적은 범위의 악기만 제시한다.

작곡의 위치와 위촉 배경

Melodien은 Ligeti가 1960년대의 밀집한 미크로폴리포니에서 더 분절되고 투명한 선율성으로 이동하던 시기의 작품이다. 공식 해설은 바로 앞선 Chamber Concerto 이후에 이 곡을 썼다고 설명하며, 과거 문법을 버리기보다 겹친 성부가 개별적으로 더 잘 들리도록 바꾸었다고 말한다. 음정과 화성은 대체로
반음계적이지만 국소적으로 온음계적 결합이 나타나며, 특정 장조 ·단조 중심이나 전통적인 화성 진행으로 조직되지는 않는다.

Nürnberg 시의 위촉은 Dürer 탄생 500주년 기념 행사라는 역사적 맥락을 제공한다. 그러나 Melodien이 Dürer의 그림이나 특정 장면을 묘사한다는 근거는 없다. 기념 행사의 의뢰와 음향의 작곡 원리는 서로 다른 정보로 남는다.

선율은 어떻게 들리는가

Ligeti는 각 성부가 고유한 진행 방식과 속도, 리듬, 음정 간격 구조를 가진 독립적인 선율이 된다고 설명한다. 이 선율들은 동시에 움직이면서 서로를 가리고, 잠깐 표면에 나타난 뒤 다시 다성적 짜임 속으로 들어간다. 따라서 제목의 복수형은 한 곡의 주제가 여러 번 변형된다는 뜻보다, 여러 선율선이 한 음향 안에서 각자의
길을 간다는 뜻에 가깝다.

Ligeti가 미로와 강물에 비유한 다성적 흐름은 음악이 계속 굽이치면서도 전통적인 주제의 재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선율이 돌아왔다 ”는 표현은 낭만주의적 노래의 복귀를 뜻하지 않는다. 많은 선율이 서로 다른 시간과 속도로 존재하면서 , 독립성과 불확실한 경계를 함께 유지한다.

단악장 구조의 청취 안내

공식 자료에는 번호가 붙은 악장이나 내부 절 제목이 없다. 다음 네 단계는 악보의 형식 표제가 아니라, 작곡가 해설과 BMC·Los Angeles Philharmonic의 청취 설명을 따라간 서술적 표지다.

1. 선율 조각의 출현
작은 선율선이 여러 목관과 현악에서 나타난다. 각각은 독립된 성격을 지니지만 완전한 주제로
정착하지 않고, 다른 성부의 움직임과 겹치면서 전체 질감에 흡수된다. 피아노와 첼레스타,
글로켄슈필과 크로탈은 선율의 윤곽을 짧게 반짝이게 한다.
2. 겹침과 흐림
선율선들이 서로 다른 속도와 리듬으로 진행하면서 전경과 배경의 구분이 흔들린다. Atmosphères 의 거대한 음향장과 비교하면 개별 선율의 윤곽이 더 자주 드러나지만 , 그 윤곽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음향은 선율과 질감 사이를 계속 오간다.
3. 중앙의 여러 옥타브 유니즌
작품의 중앙에서는 음정 구조가 여러 옥타브에 걸친 유니즌으로 잠시 수축하거나 팽창한다. BMC Records의 해설은 이 순간에 음향 공간이 열리는 듯한 인상을 설명하고, 곧 성부가 다시 벌어져
선율의 미로가 이어진다고 말한다. 이 전환은 특정 마디 번호나 고전적 재현부로 명명된 것이 아니라
, 음향 공간이 열리고 닫히는 청취상의 변화로 설명된다.
4. 극단 음역과 흐려지는 종결
마지막에는 가장 높은 음역과 가장 낮은 음역 사이에 넓은 공간이 생기며, 선율과 음향이 함께
희미해진다 . Los Angeles Philharmonic은 이를 구름 같은 잔향이 사라지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이
비유는 기관 해설의 청취 언어이며, 모든 연주에서 같은 잔향이 재현된다는 뜻은 아니다.

선율과 음색의 작곡법

Melodien에서 음색은 선율을 꾸미는 외부 요소가 아니라, 어떤 선율이 들리고 사라지는지를 결정하는 구조적 수단이다. 피아노 ·첼레스타와 금속 타악기의 밝은 입자는 목관의 짧은 선율을 가시화하고 , 현악의 서로 다른 음역과 지속은 선율선 사이의 거리를 바꾼다. Ligeti는 음정 재료의 변화가 미리 계획되지만 Chamber Concerto에서처럼 순열 기법에 의존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국소적으로 우세한 음정 결합이 계속 바뀌어, 한곳에 머물지 않는 강바닥 같은 흐름을 만든다.

Uniarts의 학술 연구는 이 작품을 1960년대의 음향 구름과 이후의 더 뚜렷한 선율 ·삼화음적 관심 사이에 놓인 전환기 작품으로 분석한다. Los Angeles Philharmonic이 말하는 “macro”한 선율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질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도 독특한 선이 전보다 강하게 드러나고, 그 선들이 대조적인 구역을 연결한다는 해설이다. 이 자료는 음악사적 평가와 작품의 구체적 마디 분석을 구분해 제시한다.

Atmosphères와 Chamber Concerto 사이
Atmosphères와 Lontano가 개별 성부를 거의 들리지 않는 밀집된 표면으로 합쳤다면, Melodien은 같은 다성적 엄격함을 유지하면서 선율의 윤곽을 더 자주 노출한다. Ligeti는 이를 전통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투명성으로 설명한다. 바로 앞선 Chamber Concerto와는 반음계적 재료를 공유하지만 , Melodien을 그 작품의 후속 악장이나 단순한 변주로 볼 근거는 없다.

작곡가의 공식 해설은 Charles Ives에게 받은 인상을 언급하면서도 직접적인 Ives 영향은 없다고 선을 긋는다. 여러 선율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구상은 서로 다른 가능성을 떠올리게 하지만, 이를 특정 선율의 인용이나
작곡가의 단일 의도로 확정할 수는 없다.

초연과 후대 연주

1971년 12월 10일 Nürnberg의 초연은 Philharmonisches Orchester Nürnberg와 Hans Gierster가 맡았다. 이는 1971년 작품이 Dürer 기념 위촉의 현장에서 처음 공개된 사건이며, 미국이나 다른 도시에서
열린 후대 공연과 구분된다. Los Angeles Philharmonic은 1972년 4월 13일 Zubin Mehta 지휘의 첫 기관 공연을 기록한다. BMC Records는 2009년 Carnegie Hall 공연 음반에서 선율 조각과 중앙 유니즌, 극단 음역을 청취 포인트로 설명한다.

공식 자료에는 작품을 위한 여러 음반의 정확한 녹음일과 편성 판본이 모두 정리되어 있지 않다. 확인 가능한 자료만으로는 특정 녹음을 최초 녹음으로 정하거나, 영문 ·독문 사이트의 기여자 수 차이를 녹음 규모로 해석할 수 없다. 확인 가능한 것은 소편성 현악 또는 현악 증원판이 모두 존재하고, 곡의 복잡한 선율망이 서로 다른 연주 조건에서 드러난다는 점이다.

주요 자료

György Ligeti 공식 작품 페이지, Melodien

György Ligeti 공식 독문 작품 페이지

Budapest Music Center, Melodien

Los Angeles Philharmonic, Melodien

BMC Records, Ligeti and Kurtág at Carnegie Hall Music Austria, Melodien

IRCAM, Melodien

Ensemble C Barré, Melodien

Uniarts, harmonic and melodic elements 연구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10:29 UTC by 안준영
Updated 2026-10-04 10:10:29 UTC by 안준영